



“우리 졸업해요!” ...

졸업앨범 사진 촬영이 지난 15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부모님께 감사인사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 박영석 동문, 새 100년 메시지 에베레스트에 남겨

지난 3월 21일 발대식을 갖고, 같은 달 25일 에베레스트 횡단에 나선 박영석(체교91졸) 동문이 지난 11일 오후 2시 50분 경 중국 쪽 루트를 통해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에 성공했다. 건학 10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히말라야 횡단 도전에 나선던 박 동문 일행은 우리학교 세백년의 소망을 담은 메시지를 에베레스트 정상에 묻는 의식을 가졌다. 박 동문이 이끄는 원정대는 오는 25일 오전 9시 경 인천공항에 귀국할 예정이다.



## ‘지식기반 사회와 불교생태학’ 국제 학술대회 25일 개최

불교문화연구원은 건학100주년을 맞이해 ‘지식기반 사회와 불교생태학’이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문화관 예술극장과 대강전에서 진행된다. 여기에는 세계적 평화운동가인 묘한 갈룡을 비롯해 ‘오래된 미래’의 저자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환경윤리학자 유진하그로브, 서울대 이도원 교수 등 국내·외 8개국의 저명 학자 21명이 참여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취지는 우리학교를 중심으로 수년간에 걸쳐 축적해 온 불교생태학을 다각도에서 점검하고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적 대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관련기사 7면

## 신한은행, 발전기금 15억 기부

신한은행이 우리학교 건학 100주년 발전기금으로 15억을 기부했다. 이에 지난 16일에는 본관 5층 소회의실에서 ‘신한은행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 발전기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신상훈 신한은행장을 비롯한 신한은행 측과 홍기삼 총장 등 학교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발전기금 기부는 우리학교가 올해로 건학 100주년을 맞이했고, (주)조흥은행이 신한은행으로 통합되면서 이루어졌다.



## 실크로드 문화유적답사 참가자 선발

생활협동조합(이사장=송일호·경제학, 이하 생협) 주최로 열리는 ‘건학100주년 기념 실크로드 문화유적답사’ 참가자 12명이 지난 17일 발표했다. 생활문화사업의 일환인 이번 답사는, 불교문화유적답사를 통해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구성원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생협의 생활문화사업비를 전액 지원받아 중국 돈황, 우무무치, 투루판 일대를 다음달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답사한다. 참가자들은 지난 5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신청접수 및 면접, 2005년 귀향추천, 장립2주년추천을 통해 선발되었다. 선발된 학생들은 김범준(불교학부1), 임영두(영문1), 이재훈(수학2), 김현지(신방2), 김기현(경영3), 오윤석(경영학부1), 황규효(식품공학2), 박용환(토목환경공학4), 홍순천(건축공학3), 장문희(역교3), 최양의(일본 석사2학기), 양정민(불교미술 석사3학기)이다.

## 농구부 신임 사령탑 이충희 감독 부임

이충희 전 고려대 농구부 감독이 우리 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지난 15일 부임했다. 이번 부임은 최희암 전 감독의 후임으로 우리 학교 농구팀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감독은 “동국대가 모교는 아니지만 감독으로서 부임한 이상 모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생다운 패기 있는 대학 농구를 만들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공모전 당선작 11개 발표

스승의 날 기념 ‘제4회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공모전’의 11개 당선작이 지난 15일 발표됐다. 이번 공모전은 사제의 정을 돈독히 하고 기억에 남는 강의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널리 알려 면학 분위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학습개발센터 주최로 열렸다. 당선자에게는 각각 20만 원씩 총 220만 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당선된 명강의 교수에게는 각각 30만 원이 상패와 함께 주어진다. 시상식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교무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당선자	강의명	강의교수
서선화(불교2)	좌선법의 이해	박문기(신학)
김현지(신방2)	소설과 영화의 대화	정종현(국어국문학)
박지현(화학4)	분석화학	여인형(화학)
장미(법4)	환경법	최봉석(법학)
이상호(영문4)	미시경제학	이영환(경제학)
김상미(아간경영3)	윤리경영	이영면(경영학)
배장환(식품4)	식품화학	이광근(식품공학)
권순철(생화공3)	재료과학	박상권(생명화학공학)
윤상호(컴공4)	운영체제	이금석(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
문희경(역교4)	역사학개론	한철호(역사교육)
정여나(영화·영상3)	촬영조명실기	박종호(영화영상학)

## 야간강좌 총학생회장에 정평주 군 당선

제22대 야간강좌 총학생회장 선거결과 정평주(야간 국제통상3) 군이 총 98%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당선으로 치뤄진 이번 선거의 투표는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19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 투표결과 총유권자 365명 중 189명이 투표에 참여해 51%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186표, 반대 3표로 집계됐다. 선거 결과에 대해 정평주 군은 “투표율이 과반수를 못넘어 무산된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로 당선돼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 “플리먼 오라” 대동제 23일 개막

제38대 총학생회(회장=정성진·경영4)주최로 ‘2006 목막대동제’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열린다. 이번 대동제는 ‘플리먼 오라’는 모토에 맞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행사와 공연이 마련돼 있다.

첫째 날인 23일에는 만해 광장에서 △보드게임 체험 및 대회 △먹거리장터 △3점술 쓰기 △NIVEA 캠퍼스 페스티벌 △테이블축구 게임대회가 진행되며, 팔정도에서는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하는 동국바자회가 열린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연예인 등분과 교직원들의 애장품이 경매되며 경매를 통한 모든 수익은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된다. 또한 대동제 기간동안 동국관 앞 통일광장에서는 게임을 통해 학생들에게 질레트 마하3, 응원 Funbox를 증정하고 이와 함께 도넛츠와 토의 문제집을 나눠 줄 예정이다.

목막 대동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

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개막식 1부에서는 △경주캠퍼스 국악과와 동아리 AJAX, ODC 퓨전 무대 △동국알리미, 동국정사진, 숲은천사 시상식 △전해빈, 이승기 우정출연 무대 △SKY 댄스춤 대회가 진행된다.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2부에서는 ‘개그 콘서트’ 공연이 열리고, 3부에서는 에디와 린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개막식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2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만해광장에서 보드게임 체험 및 대회와 먹거리 장터가 열린다. 팔정도에서는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동국포스트 플레이 △동국 타자왕 행사가 진행된다. ‘동국 포스트 플레이’에 참여한 학생들은 과자빨리먹기, 맥주 500cc 빨리마시기 등 마련된 20개의 테마 중 8개를 체험하고, 성공한 개수에 따라 상품 및 보물찾기 힌트를 받을 수 있다. 교가, 응원가,

우리학교 100주년 기념 축시를 타자로 쳐 승자를 가르는 ‘동국타자왕’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상품 및 보물찾기 힌트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대운동장에서는 오후 4시부터 친환경 프로젝트와 연계된 ‘2006 Seoul Rock Festival in DGU 100th’가 열린다. 이번 락 페스티벌에서는 △크라이닉 △텔리스페이스 △크래쉬 △피아 △아수라 △우리학교, 성균관대, 연세대 밴드 공연이 펼쳐진다.

25일에는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팔정도에서 도전100곡과 동국 100년 역사를 알아보는 ‘동국OX퀴즈’가 진행된다. 도전100곡에 성공한 학생에게는 문화상품권이, 동국OX퀴즈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는 노트북, MP3 플레이어, SKY 핸드폰 등이 상품으로 지급된다.

오후 6시부터는 대운동장에서 마지막 행사인 ‘제25회 백상응원대제전’이 펼쳐

진다. 응원대제전의 사회는 붐(BOOM)이, 초청가수로는 △오산 △버즈 △DJ DOC가 멋진 무대를 꾸며주어 축제 마지막 날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축제에서는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와 함께 취업컨설팅과 강연회도 마련돼 있다. 25일에는 축제와 연계해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무료 인적성 검사, 취업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컨설팅이 진행되며, 오후 4시에는 본관 중강당에서 손범수 아나운서의 ‘꿈이 있는 삶’ 초청강연도 예정돼 있다.

이번 대동제와 관련해 총학생회 이훈희(경영4) 사무국장은 “학생들이 대동제에 참여해 동국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많이 마련하고자 노력했으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 동국 100년, 맑은소리 좋은생각

무시무종(無始無終)의 옛적부터  
대지(大地)에 단비가 내리고  
상쾌한 바람이 찬란한 빛을 불려오더니,  
무수한 생명들이 환희의 노래를 부르며  
온 누리의 근원이신 청정심(淸淨心)을 찬탄하네.

우리 동국(東國) 새 백년의 시작에 즈음하여  
욕망과 아집의 무명(無明)을 밝혀  
온갖 종교와 민족과 사상의 장벽을 초월하여  
지혜와 큰 사랑으로  
세계 제일의 동국(東國)을 건설하세!



이대성  
동문·종로 대신고등학교 교사



### 동국 100년, 맑은 소리 좋은 생각 원고모집

대상 학생, 교수, 직원, 동문, 학부모 등 모든 동국 가족  
내용 건학 100주년을 자축하며, 동국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동국발전을 위한 제언 등 맑은 소리 좋은 생각의 기획 취지에 어울리는 내용  
형식 자유 분량 100글자 인콰 원고 마감 2006년 5월 31일까지  
원고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중구 필동 37가 26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전자우편) dgupress@dongguk.edu (교내네트워크) 핸디오피스 전자우편 수신 : 동대신문사 부국장 관주영  
원고료와 부상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잘 된 원고를 골라 총 상금 100만원을 드립니다.(감동상 50만원, 자랑스상 30만원, 도전상 20만원)  
※ 기타 문의사항은 동대신문사(☎02-2260-3491)로 하시기 바랍니다.

## 금주의 동국인

###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선정 식품공학과 이광근 교수



헬렌 켈러의 설리반 같이, 훌륭한 이의 뒤에는 항상 그를 지원해 주는 스승이 있었다. 이광근(식품공학) 교수는 일찍이 ‘스승’이라는 역할의 매력을 알고 뜻을 품었다.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공부해 석사과정 중에도 훗날을 준비하며 학부 강의를 들었다는 이 교수. 한 제자가 이번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공모전’에서 자신의 강의를 추천해 당선된 것은 지난 스승의 날 가장 큰 선물이 되었다고 한다.

‘10학년처럼 느껴지는 강의’, ‘재수강을 피할 수 없다’는 학생들의 평은 이 교수의 연구실 책상 가득 쌓인 시험지가 대신 증명하는 듯했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시험을 자주보고 답안지를 직접 채점해 돌려줌으로써 학생들에게 부족한 점을 스스로 개선하게 한다고 한다. 이는 ‘학생과 교수의 사이에는 상호간의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강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 교수는 “강의를 할 때는 엄격하게 하는 편이지만 평소에는 다가가기 쉽고 친근감 있는 교수였으면 한다”고 말한다. 연구실을 열어두고 학생들과 상담시간을 가져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직접 귀 기울인다고. 그만큼 자신의 수업 받는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그는 학생들에게 “1등을 해본 사람만이 1등인 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등을 경험해보았으면 한다”며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부딪쳐 좌절도 하고 회고가 되라”고 말한다. 또한 “공부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학교나 학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야를 넓힐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 교수의 소망은 ‘스승의 날이면 생각하는 사람, 존경받는 교수로 남고 싶다’는 것이다. 그의 이런 소망과 노력이 학생들에게 전달돼 오래도록 삶의 등불같은 존재로 남기를 기대해 본다. <송>  
banacream@dongguk.edu

지난호(5월 15일자) ‘금주의 동국인’에서 ‘참사람봉사단’을 ‘참사람봉사단’으로 정정합니다.

# 이전보다 넓어진 전과의 문

## 학과 자율로 결정 ... 성적보다 면접위주로 평가

전과(전공변경)제도가 바뀐다. 신청 시기가 확대됐고, 성적 제한을 없애 학생들의 전과 기회가 많아졌다. 전형 기준은 각 학과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변경된 전과제도는 200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되며, 다음달 1일부터 이틀간 신청을 받는다.

신청 시기의 경우, 기존 3학년 진급예정자에게 한 번만 허용됐던 것이 이번부터 재학 중 총 4번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전과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2006학년도 1학기 현재 2~5학기를 이수한 재학생이며, 이번 학기에는 6학기 재학생에게도 전입가능인원 내에서 후순위로 전과 신청이 허용된다. 단, 신청했

수와 관계 없이 재학 중 1회에 한해 가능하며, 휴학생, 편입학생, 전과이력이 있는 학생, 불교계 추천 전형 불교학부 입학생은 전과가 불가능하다.

전형 기준은 지금까지 예능, 사범계를 제외한 일반계에서 100% 성적과 면접으로 평가하던 것을 각 학과(전공)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전과가능 성적이 가장 높은 편이었던 국어교육과는 성적이 포함되는 서류심사를 50%로 대폭 줄이고 구술시험과 교직인적성을 각각 25%로 확대했다. 컴퓨터공학전공의 경우 100% 구술시험으로만 평가한다. 이번부터 새로운 전형 기

준으로 선발하는 학과가 있는 반면, 전형 발표 결과 많은 학과들이 기존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전형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누계평점평균 2.5 이상에 70학점(졸업학점 120학점 학과의 경우 60학점) 이상 이수해야 했던 성적 제한은 없어졌다.

이번 변경의 취지에 대해 학사지원실 류변성 과장은 "지난 학기를 이수한 1만 2,000여 재학생 중 500여 명이 학사경고를 받았고, 그 중 경고 누적에 의해 제적된 학생만 49명에 이른다"며 "이렇듯 전공공부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적성이 잘 맞는 학과로 옮길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전과제도를 소위 취업이 잘 되는 학과로 옮겨가는 데 이용하는 현재의 폐단을 시정하고 전과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는 것이다.

전형은 다음달 22일과 23일 각 학과별로 지정된 일시에 치러진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전과신청원 1부, 전과 학업이수계획서 2부, 성적증명서 2부를 전일 희망 학과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7월 21일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으며, 학적변동일은 2학기 개시일인 9월 1일이다.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 회전무대

## 안전불감증

○...대운동장 스탠드도 100주년 면모를 갖추고 싶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대운동장 스탠드 곳곳이 노후해 보수공사가 필요한데도,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야 하는 등 사업의 규모가 커진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대운동장에서는 100주년 기념 행사와 대중제 일정 등으로 많은 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속히 보수공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학생 다치고 대운동장 고친다!!"

## 다다익선

○...우리학교 외국어 수업은 소수 정예를 원치 않는다는데.  
알아본 즉, 외국어 한 수업에 배정되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 학생들의 집중적인 회화 연습이 어렵다고.

실질적인 회화실력의 강화를 위해 수업 하나당 보다 적은 인원의 학생을 분배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외국어 강의는 학생들 대거 모집 중!!"

## 종이의 성

○...해화관에서는 야외수업이 한창이란다.  
무슨 말이고 하니, 해화관 1층 몇몇 강의실에서는 방음시설이 제대로 돼있지 않아 건물 밖의 소음이 고스란히 들린다.

오래된 건물이라 개·보수가 어렵지만 효과적인 수업진행을 위해 커튼을 설치하는 등의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오늘의 듣기자료는 자지러지는 웃음소리입니다!!"

## 있으나 마나

○...생협은 아무도 모르게 선행 중이란다.  
무슨 말이고 하니, 상록원 등 학교식당과 매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학생증 겸용 카드는 금액의 3%가 적립돼 사용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거의 모르고 있다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식당이니 만큼, 유용한 제도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생협의 혜택은 비밀리에!!"

# 총대위원회 회장에 명창희 군 당선 총여학생회 선거는 투표율 저조로 무산

제38대 총대위원회장과 제19대 총여학생회장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투표는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의 유세기간을 거쳐, 17일부터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단과대 건물 지정 10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총대의원회장은 각 학과 대표에게, 총여학생회장은 모든 여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총대의원회 선거결과 명창희(정보통신4) 군이 단독 출마 해 80.8%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총 유권자 209명 중 125명이 투표해 59.8%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그 결과 찬성 101표, 반대 13표, 무효 11표로 나타났다.

명창희 군은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서 학생자치활동이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 아직까지 학생들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뢰를 얻게 돼 기쁘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또한 "학생회의 감시·견제를 통해 학생자치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총대의원회의 목적"이라며 "그동안은 이번 새내기새로배움터에 대한 특별감사조차 진행되지 않는 등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문제들을 모른 채 넘어가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를 지켜본 경진석(식품

공학1) 군은 "아직까지 총대의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학생이 많다"며 "오랫동안의 공석을 메울 수 있는 활발한 활동을 바란다"고 당선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총여학생회 선거 결과 송영미(사학4) 양이 단독 출마 했으나 25.8%의 낮은 투표율로 인해 당선되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는 총유권자 5,683명 중 1,46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총여학생회는 지금까지 3년간 부재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송영미 양은 "여학생들의 인권 신장과 복지를 위해 많은 활동이 이뤄지고 균형 잡힌 학내 성평등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총여학생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비록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창우

(전자공학3) 선거관리위원장은 "최근 학교행사가 많아 그에 비해 홍보가 부족했으며, 각 단과대의 저조한 협조로 인해 투표율이 낮게 집계된 듯하다"고 밝혔다. 또한 "투표율에 대한 교육 미숙으로 예정보다 선거가 하루 미뤄진 점이 이번 선거 관리의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했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여학생이기에" ...

지난 19일 동국대 2층 경영대 투표소에서 김소연(경영1) 양이 총여학생회 투표를 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고 있다. 제22대 총여학생회 선거는 투표율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아쉽게 무산되었다.  
(L) wiki26@dongguk.edu

# 동약로

## 재방송

"수업 중에 예로 든 사례가 이미 오래전 일이에요."  
"강의 속 지난 과제와 실제로 변경된 과제 공지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이버강좌'는 매년 일정 인원의 수강생을 바탕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만, 강좌 제작 시기가 오래돼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학기 사이버강좌의 수강 인원은 총 3,129명이며 17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현재 개설된 강좌 중 최초 개설 시점을 기준으로 4학기 이상 된 강좌는 16강좌이다.

또한 강좌가 신규로 개설되거나 수정된 경우는 △2005년 1학기=신규 6개 △2005년 2학기=변동사항 없음 △2006년 1학기=수정 10개, 신설 없음으로 대부분이 기존강좌를 토대로 꾸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신설된 강좌를 3학기 동안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하는 조건 외에도, 내부 조직과 제작상의 여건 때문이기도 하다.

처음 사이버강좌는 다른 대학처럼 분리된 사이버 대학을 계획으로 2004년 '사이버 대학' 부서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초 조직개편을 하면서 해당 부서가 없어지고 교양교육원으로 담당 부서가 바뀌었다. 기존 2명의 직원과 3, 4명의 조교로 운영되던 것과 달리 지금은 1명의 조교가 일을 전담하고 있어 지난해부터는 신규 강좌를 개설하기보다는 기존 강좌를 유지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또한 100% 의무제작으로 이뤄지고 있어 강좌 당 1,200~1,500만원에 달하는 신규 개설 비용 역시 현상유지만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한편, 현재 교양교육원은 다음 학기에 신청을 받아 최대 10개 강좌를 신설하고 교수 요청에 따라 강의 내용 일부를 수정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강좌를 자체 제작해서 강좌의 운영과 개선을 이원화 할 수 있도록 논의 중에 있다.

수강을 원하는 많은 학생들을 온라인상에서 충분히 수용하고자 시작된 사이버강좌. 오래전 모습이 아닌 보다 생생한 수업 현장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 "동국 100주년을 알아봅시다"

## 총학, 진학기념 공모전 30일까지 접수

제38대 총학생회(회장=정성전·경영4)는 건학100주년을 맞이해 동국 100주년의 참뜻을 학내·외에 알리고자 '동국 100주년 공모전'을 연다. 공모는 동국 100주년 알리기, 투명동국 만들기 분야이다.

'동국100주년 알리기 공모전' 홍보내용은 △동국100주년의 의미 알리기 △동국100주년 행사 알리기 △신입생유치를 위한 동국 알리기이며, 본인 출신 모교와 대학연합동아리에 동국 100주년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여야 한다.

또한 '투명동국 만들기 공모전'에서는 동국대의 숨은 천사와 잘못된 점 바로잡는 내용 중 잘못된

품을 선정하는데 숨은천사 찾기의 경우 선정을 하는 사람의 사진과 내용을 기사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잘못된 점 바로잡기를 접수할 시에는 잘못된 점을 지적해 자유롭게 쓰면 된다.

신청은 제38대 총학생회 서포터즈 및 학부 재학생, 휴학생이라면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해 인터넷 접수와 총학생회실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동국 100주년 알리기에 접수할 시 신청서와 홍보계획서, 홍보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투명동국 만들기 공모전에는 자유롭게 서신한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 2006-여름학기 사회봉사 단원모집(학점신청)

1. 접수 : 재학생
2. 신청기간 : 2006. 5. 29(월)10:00 ~ 5. 30(화)17:00 (※ 봉사 프로그램 신청은 선착순 마감)
3. 수강신청 가능 인원 : 97명(수강신청 인원 제한으로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람)
4. 동국참사람봉사단 예비교육  
가. 일시 : 2006. 6. 20(금) 예정 나. 장소 : 중구청 위락  
※ (트.예비교육은 최초 봉사활동 신청시 이수해야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재학기간 중 1회만 이수하면 됨.)
5. 봉사활동 기간 : 2006. 6. 26(월) ~ 2006. 8. 31(목)
6. 봉사활동 방법 : 기간 중 활동내용 및 시간을 선택하여 33시간 이상 이수
7. 봉사활동 대상기관 : 중구청, 교내봉사
8. 사회봉사 학점 신청방법 및 성적처리  
가. 학점 신청 방법 : 재학생서비스) 수강신청 ) 사회봉사 학점신청  
나. 평가 방법 : Pass 또는 Fail  
다. 성적 평가  
(1) 학점 인정 : 여름학기 기간 중 33시간 이상 활동 시 (교과목: 사회봉사, 이수구분: 자유선택, 1학점 Pass)인정  
(2) 학점인정시기 : 여름학기 활동자(2006년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에 학점반영)  
(3) 전체 졸업이수 학점에는 포함하나 평균성적 산출 시에는 포함하지 않음.  
(4) Fail의 경우 1'학점 평점평균에 반영
9. 봉사 신청 제한 : 봉사활동 기간이 9월 31일까지로 성적처리 2학기에 완료되므로 아래 대상자는 수강신청을 제한한다.  
- 2006학년도 1학기 현재 8학기 학생 - 9학기 이상의 학점 등록자  
※ 사회봉사 학점은 수강신청 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이수 학점으로 는 재학기간 중 2학기까지 인정함.
10. 수강신청 취소 불가 :  
■ 특 전 : 사회봉사 인종서 발급/성적우수 점학생 선발시 시간인정/우수봉사자 포상 및 장학금 지급/중점수여  
■ 최근 상담수의 기업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의 경험을 중요시하여 채용 과정에서 봉사활동 여부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봉사단 홈페이지 : (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동국참사람봉사단)

**동국참사람봉사단**

## 2006 하계 해외대학생 초청봉사 단원 모집

- 1.목적  
- 건학 100주년을 맞이하여 분교와 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의 사천대학 학생들을 초청하여 평소 접하기 힘든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더욱 활발한 교류의 장을 마련  
- 2006년 분교 학생들이 사천대학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한 결과 현지파견 봉사 뿐 아니라 현지 학생들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인식  
- 한·중 국가 간 문화교류를 통한 친선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학생들의 국제 경험과 봉사능력 향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차세대 지도자 양성
2. 신청 자격 : 재학생
3. 선발 기준  
가. 신체 건강하고 성실하며 봉사활동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특기자 우선  
나. 중국 학생과 홈스테이 가능자(봉사기간 중 3일 동안 홈스테이 예정)  
다. 각 전문분야별 봉사회 회원  
라. 봉사활동 경력자 및 특기자 우대  
마. 여학 능력자(중국어) 우대  
(※ 파견 대상자 선발은 봉사단 심의를 거쳐 결정함.)
4. 선발 인원 : 30명
5. 봉사 기간 : 2006. 7. 20(목) ~ 8. 2(수)13박 14일 (2주간)
6. 신청 기간 : 2006. 5. 29(월) ~ 5. 30(화)  
(※ 위 일정은 봉사 지역의 사정에 따라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7.봉사활동 내용 : 한글교류, 컴퓨터, 태권도, 사물놀이, 레크리에이션, 노력봉사 등
8.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봉사단 소정 양식)
9. 접수처 : 인터넷 접수
10. 학점 인정 : 2006학년도 해외봉사자는 여름학기말 사회봉사 1학점 취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국참사람봉사단에 문의 바람.  
- 문의 전화 : 2260-3049 -

**동국참사람봉사단**

## 2006-2학기 우수장학금 신청안내

2006학년도 2학기 우수장학금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장 학 명 (장학금액) : 우수장학 (등목금 30%)  
가. 단과대수석장학 및 전공(학과)수석장학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성적순에 따라 선발함.  
나. 신규 교외장학대상 우수장학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에서 우선 선발함.  
다. 보존자녀 등 계속장학생은 신청할 필요 없음.
2.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재학생으로 우수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  
가. 2006-1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취득학점 미달 및 평균평점이 3.0미만인 경우 추후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나. 교내,외의 타 장학금을 받는 자 제외  
다. 2006-2학기 복학예정자 제외
3. 신청기간 : 2006. 5. 22(월) ~ 6. 2(금)
4. 신청장소 : 해당 학업지도교수
5. 신청방법 :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제출
6. 신청서 평가기준 : 아래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가. 학업성적 : 50점 나. 사회봉사 : 10점  
다. 가정환경 : 20점 라. 학업지도교수평가(학과특성 및 기여도) : 20점  
※ 항목별 세부기준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해당대학 교학과에 문의바람
7. 제출서류  
가. 장학금신청서에서 다운받아서 사용  
나. 사회봉사인증서  
1) 교외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봉사기관에서 작성한 봉사활동 증명서류를 해당대학 교학과에 제출함.  
2) 동국참사람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자동 접수 처리됨.  
3) 사회봉사경력없는 졸업 시까지 계속 인정됨.  
다. 지방세 세목별(미)과세증명서 : 부모 각각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라. 기타 가정환경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마. 학업성적은 자동으로 접수 처리됨  
※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우수장학금을 수혜 할 수 없음.

**학 생 처**

### DMZ의 생태환경적 의미와 한반도 평화

# ‘상생의 공동체’ 일궈낼 평화의 씨앗

비무장지대(DMZ)는 한반도 생태환경의 보고이자 평화의 씨앗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전쟁의 비극에서 잉태된 이 땅은 전쟁과 평화, 삶과 죽음, 과거와 미래를 상징해 왔다.

그러나 이제 DMZ는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 보존과 관리의 상징이 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차원의 냉전체제가 해체 속도를 높이면서 점차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생물학적 다양성 우수

한반도의 허리를 동서방향으로 155마일(248km) 가로지르는 DMZ는 생태환경적으로 반세기 이상 고립된 섬으로 존재해 왔다.

최근까지 이 공간은 남북간의 군사완충지대 이외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공간은 인간의 개입이 사라진 뒤 독특한 야생 생물의 안식처이자 역사적인 자연유산으로 바뀌었다. 파괴와 폐허 속에 놓인 숲과 농지가 꽃과 풀로 매워진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서 멸종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들에게 DMZ는 보다 완벽한 서식지를 제공해 주었다.

DMZ 생태계는 자연지리 및 지형적 특성에 의해 5개 소권역으로 구분된다.



논단

김윤현

사회과학대학 북한학과 교수

서부 도서지역, 서부 해안지역, 중서부 내륙지역, 중동부 산악지역 및 동부 해안지역이 그것이다.

각 지역의 자연환경적 특성에 따라 인식하고 있는 생물상도 다양하다. DMZ 내의 생물상은 인근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 조사에 의해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국제적으로 충분히 그 생물학적 다양성 가치가 매우 우수한 지역임이 확인되고 있다.

#### 평화적 이용 위한 과제

1960년대 고엽제 살포, 수 십 년 동안 이루어져 온 사계(射界)정소를 위한 화공작전에도 불구하고 DMZ는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 왔다. 자연이 가진 자생력에 의해 오늘날 한반도 내의 다른 지역

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수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쟁의 상흔과 전사자들이 켜켜이 쌓인 공간에서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풍성한 생태계로 바뀐 현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DMZ의 평화적인 이용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전협정 참여국들의 동의와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남북 간의 협정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북한의 정치, 군사적인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하고, 군사시설의 이전과 지뢰제거 등 선결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남북한 당국이 산적한 과제들을 극복

하고 DMZ에서의 남북한 협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부담이 적고 도움이 되는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중 동·서해 연안에서의 공동어로 사업과 농업용지 공동 활용 사업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협력사업이다. 이 사업들은 북한의 어려운 식량문제와 연결시켜 추진할 수 있다.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

#### 한반도의 DMZ화

DMZ에서의 교류협력은 정전협정에 의한 휴전상태에서의 상호협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자체가 한반도 평화의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의 씨앗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세기 한국 현대사와 자연사에 있어서 DMZ는 가장 상징적인 기념비였다. 그러나 이제 21세기 한국 현대사와 자연사에 있어서 DMZ는 한반도의 평화, 인간과 자연의 ‘상생의 공동체’를 일궈내는 공간으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공간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된 후, 미래 한반도가 동북아의 비무장지대로 남아 있는 ‘한반도의 DMZ화’의 씨앗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공학인증제, 중간 방문 평가단 맞는다

## 실효성 여부 논란 속 ... 공학인재 양성 참 뜻 살려야

공학교육인증 중간방문평가단이 오는 23일까지 3일간 우리학교를 방문한다.

이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인증정책 및 절차규정에 따라 자체보고서 평가에 이어 실시되는 현지 방문 평가로 교육환경, 교수진과 학생들의 사기, 교수와 학생들의 안정성과 계속성, 직원 및 학생단체의 장·약점 파악 등 자체평가에서 적절히 설명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공학교육인증제는 공학교육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식산업사회에서 주도적인 기여를 할 실력 있는 엔지니어들을 배출해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우위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즉, 공과대학 교육에 대한 일종의 ‘품질 보증서’라고 할 수 있다.

우리학교는 지난 2000년 시범운영해, 이듬해인 2001년부터 국내 최초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 대상 대학에 선정됐다.

현재 우리학교에서 공학인증제를 받을 수 있는 학과는 건축학전공을 뺀 공과대학의 전 학과(전공)와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이다.

인증 취득을 위해 학생들은 수학, 기초과학, 전산학 분야에서 30학점, 기본소양 과목에서 12학점, 공학주제에 관하여 6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306명의 졸업생이 각 전공별 인증자격을 취득했다.

지난 2월, 삼성전자가 채용시험에서 공

학교육인증 대학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해 국내 최초 공학교육인증제를 받았던 우리학교가 다른 대학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좋은 평가만은 아니다. 실제로 공학교육인증제에 맞춰 수업을 받고 있는 전자공학과와 한 학생은 “공학인증 BSM과 기본소양과목 등 이수요건을 채우다 보니 다른 교양과목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편협한 교양교과 운영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근 김상길 한밭대 교수 역시 한국교양교육협의회 학술대회에서 “평가받는 거의 모든 대학을 인증해주는 게 과연 인증제인가”라며 공학인증제 실효성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인증원 이사장인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업에서 공학인증 학위취득자를 우선 채용하겠다고 말한 뒤 인증제를 도입하는 대학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대학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공학인증제도는 인증된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생에게 공학실무를 담당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증하고, 공학교육에 대한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방법으로 공학교육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학인증제가 원래의 의도를 다스림 되새겨 편협한 교과운영과 과도한 전공중심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 사설

## ‘서울 락페스티벌’에 거는 기대

일찍이 만해 스님은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라 했다. 인간 삶의 모든 가치 중에 자유가 으뜸이라는 뜻이고, 이는 삼라만상 모든 생명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만해 선사가 자유를 지고무상의 가치로 파악하는 데에는 물론 자유가 근원적으로 박탈당한 식민지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한 사상적 기초의 구축이라는 ‘민족주의의 큰 그림’이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자유를 방편적 개념으로 사용했다는 오해를 하기 쉽다. 그러나 그의 글을 잘 보면 자유를 정치투쟁의 도구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칙이자 원리라고 역설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만해 스님의 정신과 자취를 흠모하고 기리는 우리학교가 건학 100주년을 맞아 24일 수요일 ‘서울 락페스티벌’ 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10년 동안 해오던 ‘동국 락페스티벌’을 확대해서 국내의 대표적인 민간음악축전으로 성격을 바꾼 것이다. 국내 최고의 락밴드들과 동국대, 연세대, 성균관대 락밴드가 총출동해 대운동장을 뜨겁게 달굴 것이다. 기대가 자못 크다.

동국대학교의 락페스티벌 축제를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미지가 상충하기 때문이다. 동국대학교의 표상은 금옥과 절제, 그리고 수행의 이미지가 강하다. 이에 반해 락음악은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진다. 열광, 도취, 즐김 등은 락의 본질이다. 그래서 언뜻 보면 동국대학교의 락페스티벌 축제는 대학의 아이덴티티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자유에 있다는 만해 스님의 갈파에 따르면, 이 둘은 일치한다. 락음악의 본질이 바로 자유라는 점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일부에서 ‘젊은이들만의 시끄러운 음악’으로 치부된다 하더라도 락의 자유정신이 폄하되는 것은 아니다. 락을 즐기는 것은 방종하거나 타락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경험해보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자유라는 추상적인 얼굴을 한번 매만져보는 것이다. 락커가 고성을 지르고 무대 위를 뛰어다니면 나도 모르게 피가 뜨거워지고 심장이 세차게 뛰는다. 그러면 뇌의 신경들은 일제히 명령을 내린다. 소리치고 흔들고 뒤편서 모두와 함께 하라! 그 명령에 따르는 동안, 일상에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순간들이 찾아온다. 몸과 마음이, 가수와 밴드와 관객이 하나가 된다. 일체감과 만족감, 그리고 한계를 돌파하려는 자유의지가 모두의 가슴에 깃든다. 이게 바로 락이고 생명의 음악이다. 만유의 생명인 자유, 자유의 음악인 락, 오는 24일 그 황홀한 경험을 놓치지 말자.

### 동국만평

이주현 niitake@dongguk.edu

#### “대학생 ‘투표안해’ 결반 가까워”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김주환, 편집인: 정길상, 부편집장: 김지혜, 홍기삼, 윤재웅, 정지웅, 김지혜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성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 생명과 지구를 생각하는 동국의 큰 학문, 세상이 모두 손을 내밉니다

정부와 기업, 세계 명문대학들이 동국대학교와 손을 잡습니다. 10개 안팎의 학문단위를 세계최고의 경쟁력있는 분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동국을 향해, 정부는 특성화 집중지원과 연구비 지원, 기업은 산학협력 제의, 세계유수대학들은 학술교류 요청을 하는 등 세상이 활짝 문을 열고 다가서고 있습니다.

##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2006학년도 후기

www.dongguk.edu

대학원명	구분	원서접수기간	전형일	홈페이지주소	문의처	대학원명	구분	원서접수기간	전형일	홈페이지주소	문의처	
일반대학원	주간	5/22(월)~5/31(수)	6/17(토)	http://graduate.dongguk.edu/gs	(02)2260-3116	언론정보대학원	야간	5/15(월)~5/26(금)	5/27(토)	http://graduate.dongguk.edu/ci/	(02)2260-3723	
		5/30(화)~6/2(금)						6/24(토)				http://gsite.dongguk.ac.kr
불교대학원	야간	5/29(월)~6/9(일)	6/16(금)	http://graduate.dongguk.edu/bs/	(02)2260-3098	문화예술대학원	야간	5/29(월)~6/5(월)	6/10(토)	http://graduate.dongguk.edu/ca/	http://graduate.dongguk.edu/ca/	(02)2260-3607
행정대학원	야간	5/15(월)~5/26(금)	6/10(토)	http://graduate.dongguk.edu/pa/	(02)2260-3102~3	국제정보대학원	야간	5/22(월)~6/2(금)	6/3(토)	http://graduate.dongguk.edu/ia/	http://graduate.dongguk.edu/ia/	(02)2260-3733
경영대학원	야간	5/15(월)~5/26(금)	6/3(토)	http://graduate.dongguk.edu/ba/	(02)2260-3106~7	불교문화대학원(경주)	야간	6/12(월)~6/22(목)	6/24(토)	http://wwwk.dongguk.ac.kr	http://wwwk.dongguk.ac.kr	(054)770-2393~5
교육대학원	야간	5/22(월)~5/24(수)	6/3(토)	http://graduate.dongguk.edu/edu/	(02)2260-3110~1	사회과학대학원(경주)	야간	6/7(수)~6/16(금)	6/17(토)	http://wwwk.dongguk.ac.kr	http://wwwk.dongguk.ac.kr	(054)770-20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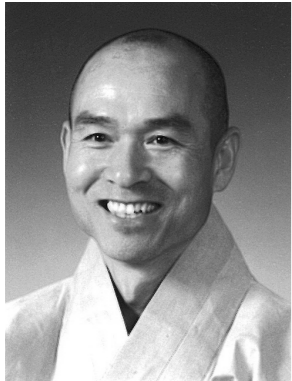


제35대 신임이사장 영배스님 인터뷰

“새로운 동국 100년 초석 놓을 터”

지난달 27일 열린 제218차 이사회에서 현재 임기 만료된 현해스님 후임으로 영배스님이 제35대 동국대 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우리 신문에서는 오는 25일 취임식을 갖는 신임 이사장 영배스님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의 재단운영방안에 대해 들어왔다.

편집자



- 1966년 경해스님을 은사로 출가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역임
불교방송 상무 역임
제11·12·13대 중앙총회의원 역임
동국대이사회 상임이사, 이사장 직무대행 역임
2006년 4월 27일 제35대 이사장 선임

재단 산하의 모든 기관들이 자율과 분권을 통하여 활기 있고 창의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생각이다. 더불어 학교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전망에 대하여는 방향성과 책임성을 분명하게 가져나가는 이사회 체제를 갖춰나갈 것이다.

- 이사장으로 추대, 선출된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산불교병원을 적극지원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원방안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오는 7월이면 일산 불교병원의 개원 일년차를 맞이하게 된다. 여러 가지 불미(不備)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공적 개원을 통하여 점차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 누구나 인정하고 있듯이 일산 불교병원의 조기 정상화는 학교의 운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불교병원 구성원들 스스로가 병원을 조기에 정상화시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겠다. 다음으로 불교병원이 본래의 건립 취지로 돌아가 조계종단을 비롯한 범 불교계의 지원과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갈 것이다. 수도권 유일의 불교계 대학병원으로 지역주민들은 물론 범 불교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상의 의료복지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육성하겠다. 이를 통하여 환자



이사장 선출 직후 소감을 말하는 영배스님.

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범 불교계의 재정적 지원과 협력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동국대는 십수년간 재단전임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사업과 관련해 앞으로 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계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 이제 학교도 경영적 관점에서 관리, 운영해야 한다.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투자활동이 주로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던 시대는 지난 것이 사실이다. 앞서가는 타 대학의 경우도 학교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활



지난 달 27일 열린 제 218차 이사회에서 영배스님이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동국대학교 역시 학교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이사회가 적극 나설 때이다. 불교계나 동문사회 등 학교와 관련한 기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이들과의 협력과 지원관계를 통하여 학교발전을 위한 기부금 확충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갈 생각이다. 다음으로 법인경영 차원에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활용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적극 개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일산지역 등 소유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와 개발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전자계산원을 비롯한 기존의 법인산하 수익사업을 활성화하고, 수익사업 부문을 점차 확대하여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 종단과 재단, 학교 간 마찰을 해결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지향점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 동국대학교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화합과 안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는 열린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사무실에 앉아서 결재만 하는 이사장이 아니라 현안이 있으면 어디든 찾아가겠다. 이사장실의 문호를 활짝 열어 누구든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종단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위해서 필요하다면 누구와도 만나고 대화해 나갈 것이다. 모든 현안들을 충분히 풀어놓고 긴밀하게 상의해 나가고, 협력이 필요하면 기꺼이 도움을 간청할 생각이다. 학내 구성원들에게도 있는 그대로의 학교 현안을 풀어놓고 이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구하고,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폭을 꾸준히 넓혀나갈 것이다. 학교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함께 하면서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이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의 대표로서 동국대가 지금보다 더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어떤 점이라 생각하십니까?

= 일차적으로 학교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와 지도체계를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학교경영의 질서와 체계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대학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산적인 교내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능하고 경영역량을 겸비한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필요하다면 제도를 정비하여 새로운 동국 100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향후 예상되는 신임총장선출 등에 대응해 나갈 생각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교수사회, 학생 및 직원 등의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동국대를 구성하는 재단 종단, 학교 관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 우선 동국대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올해는 새로운 동국 100년을 시작하는 원년이라는 인식을 가져주길 바란다. 이제 외부적 환경변화는 물론 어느덧 우리 학교법인의 외형도 지금의 체제와 의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됐다. 모두가 변화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선 이사회부터 변화할 것이다. 그와 함께 학교도 변화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우리가 맞이한 지금 이 시점은 체제와 시스템을 혁신하고 조직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이다.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현안과 과제에 대하여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맞서나갈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동국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정리 =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이야기 동국 100년史

전문학교를 향한 열망

⑦ 불교전수학교 시대



불교전수학교 교표

교무원과 총무원으로 양분되었던 불교계가 1924년에 중앙교무원으로 통합되면서 휴교상태에 있던 불교중앙학림에 대한 논의도 재개되었다. 중앙교무원은 1925년 말 평의회를 열어 '불교전문학교(가칭)'를 설립하기로 하고 총독부로부터 빌려 쓰고 있던 불교중앙학림 부지를 불하받았다. 자체 부지가 확보되지 중앙교무원은 총독부에 전문학교 설립에 필요한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1926년 말부터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총독부 학무국은 불교중앙학림이 3·1 운동에 깊숙이 관여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항일운동의 온상이 되었다는 점을 들어 전문학교 인가에 난색을 표하였다. 불교계는 전문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장하였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중앙교무원은 전문학교로의 인가를 포기하고, 불교전수학교로 재차 인가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중앙교무원은 1928년 1월 총독부에 불교전수학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그해 3월 31일에 인가를 받았다.

불교전수학교는 1928년 4월 30일에 문을 열었다. 개교 첫해에 입학한 학생은 모두 36명이었다. 비록 학교명은 전수학교였으나 입학자격은 전문학교 수준이었다. 하지만 전문학교 설립을 열망하였던 불교계는 전수학교로 인가된 데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였다. 이후 불교계는 전문학교 설립인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재단의 출자액을 증액하는 등 전문학교로 승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불교전수학교의 학부는 기존의 본과와 예과 외에 선과(選科)와 특과(特科)를 증설하였다. 이 두 과는 불교 현대화를 위하여 기성 승려들로 하여금 불교교과목을 이수토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각종 학생활동과 학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학우회는 1928년에 오늘날의 교지(校誌)에 해당하는 교양지 '일광(一光)'을 발간하여 학생들의 연구논문과 문학작품 등을 게재하였다. 또 민족사상의 고취를 위한 전국유년대회와 민족문화의 연구를 위한 학술강연회, 그리고 매년 2회에 걸쳐 진행된 지방순회 강연회는 수많은 청년학생들에게 감화를 주었다.

학생들의 대표적인 대외활동으로 하계순군단(夏季巡軍團)을 들 수 있다. 이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불교 강연 및 계몽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학생들은 영남·호남·관북 등 3개 권역으로 나뉘어 활동을 벌였는데 지역민들의 호응이 대단하였다.

이 용 범
소설가·동국 100년사 대표 집필자

동국 건학100주년!

새로운 동국역사의 창조
1%의 정성이면
100% 이루어집니다.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
후배사랑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동국대학교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과 21세기 비전실현을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덕성과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전하는 리더,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리더 —
이들이 바로 동국의 희망입니다.
후배사랑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 발전기금 참여 및 문의 ※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실
(02-2260-3300, 3794~5)

기부참여방법

- 월납, 분할납부로 큰 부담없이 모교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월3만원 x 100회(8년) 약정시 = 3,000,000원
월5만원 x 60회(5년) 약정시 = 3,000,000원
- 기타 금액, 일시납부등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합니다.

무통장 입금

- 예금주 : 동국대학교
\* 조흥은행 313-03-002943 \* 농협 360-17-003822
\* 국민은행 068-01-0373-353 \* 제일은행 107-10-119210

자동이체(CMS)납부

- CMS는 은행에 직접가시지 않아도 약정하신 분의 지정계좌에서 학교로 매달 약정하신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매월 1일, 18일 중 택일)
> 신청 :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실(전화 02-2260-3300, 3794~5)

등록금 한번 더 내기에 참여하시면...
후원해주신 분의 동국사랑과 정성을 소중히 받들어 아름다운 이름으로 후학들과 모교에 영구히 기억되도록 건학100주년 기념조형물에 새겨 보존하겠습니다.

# 열린글터

## 부도덕한 기업윤리

최근 기업들이 부를 세습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하고 편법 증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민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은 편법으로 부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국가 등 사회 여러 면에서 악영향을 미친다.

이것으로 거대 재벌들이 편법으로 부를 세습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겪게 되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나왔다.

기업가들은 이윤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자신들의 사회적 역할에 무책임했고, 그 결과 기업과 국민간의 불신이 깊어졌으며, 부의 획득이 곧 부정으로 치부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가의 기업정신의 결여로 인한 소득분배의 불균형은 필연적이라는 것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 부의 획득 못지않게 지혜롭게 그것을 사회에 환원시킬 줄 아는

건전한 기업정신이 존중받는 사회풍토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떠맡고, 주체적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기업정신의 결여로 인한 소득분배의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기업에 대해 감시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노력을 기울여 실천적으로 성과를 낼 때 우리 국민은 우리 기업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김현선(사과대1)

## 지식인과 지성인

벌써 개강을 한 지 3개월이 지나고 한 달만 있으면 종강을 맞는다. 새내기들은 부른 꿈을 가지고 대학교에 온 지가 벌써 3달째,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궁금하다.

새내기들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가장 흔하게 들었던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지성인'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성인'과 '지식인'의 차이를 알고 있을까? 새내기뿐만 아니라 고학년, 고학년 학생들도 '지성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단편적인 예로 각 학교를 대표한다는 도서관(만해관)으로 가보자. 들어가는 입구부터 볼

수 있는 무수히 떨어져 있는 담배꽂초,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뱉어놓은 침, 버려진 종이컵.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지성인'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실내에서의 금연문제 또한 짚고 넘어가고 싶다. 기본적으로 실내는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만해관 화장실을 비롯하여 각 강의동 화장실에서는 여전히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특히 화장실에서는 대류현상과 공기의 순환이 적기 때문에 담배 한 개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이 그런 행

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도서관(만해관) 사용 후 정리 상태이다. 집으로 귀가할 때 쯤 한번 열람실을 쪽 둘러보면 많은 쓰레기들이 여전히 책상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종이컵, 음료수캔, 신문 등등.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들을 대표하는 '지성(知性)'이라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좀 더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만큼 기본적으로도 성숙해져야 하지 않을까? 우리들은 '지성인'이라고 불리기에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반면 너무 적은 기본적인 소양을 지닌 것 같다.

정일수(공과대 전기공3)

## 도서관 이용 에티켓

언제부턴가 학교도서관은 자리 맡기 전쟁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특히 시험기간에 도서관 자리를 맡기란 참으로 어렵다. 아침 일찍 학교에 나와 도서관에서 다른 사람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도라면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시험기간 중 어느 날 내 옆자리로 한 여학생이 자리 맡으러 왔다가 내 주위의 자리에 책을 한 권씩 놓기 시작한다. 친구까지 생각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러나 그 자리들의 주인들은 나타날 생각을 안 한다. 시간이 한참 흘러도 아까 자리를 맡은

여학생만 잠시 왔다 갔을 뿐, 그 자리의 주인들은 나타날 생각을 않는다. 나머지 자리엔 책만 덩그러니 올려져 있고 주위에 자리를 찾아 헤메는 학생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학교 도서관에 자리가 모자라서 학생들이 공부할 자리마저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내주위에 책만 올려져 있는 자리들은 자리부족 문제가 아닌 학생들의 이기심과 이용의식을 먼저 문제 삼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도서관에 사람으로 가득 찬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반복되고 있는 도서관 자리 맡기 행위를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 도서관을 잘못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전에 만해관이 중앙도서관이었을 때 자리를 비울 때 몇 시에 올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는 써도 된다는 쪽지를 많이 봤었다. 이제는 그런 작은 행동 하나 없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시험기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지켜야 할 에티켓이 지켜지지 못하고 무시되고 있는 지금, 도서관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나'부터 변하고 실천하려는 의식이 동국인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남동현(공과대 생화공2)



## 학생논단

이 두 해 불교대 선학3

지난 10일 서울대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기자회견을 열어 한총련을 탈퇴한다는 발표를 했다. 총학은 한총련 탈퇴의 이유로 그들의 선거 공약이었던 '학생정치조직과의 이별'을 들었다. 많은 수구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 한총련과 학생조직의 몰락을 대서특필하고 학생은 밥 먹고 살 걱정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제히 흘렸다. 사회의 문제에는 신경을 끄고 취업준비나 하라는 이야기들이었다.

서울대 총학은 학교와의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학내 복지에 중점을 두고 일하겠다고 했다. 예

# 뒷걸음질 치는 대학생의 역할

를 들어 정수기라든지, 과자 자판기, 휴대폰 충전기 등을 설치하는 데 우선 힘을 모으겠다는 소리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당장에 우리 옆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등록금문제가 있다. 영문도 모른 채 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등록금이 합당한지, 그렇지 않다면 서울대 총학이 주장하듯 '학내 구성원들에게 문제를 선전하고 의견을 모아 행동을 만들어' 학교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이 바라는 학내 복지향상에 더 큰 발전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주체인 학생들이 학내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발언'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과자자판기나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진정으로 학내 복지 향상을 원한다면 협상이 아닌 학생 대중의 학교에 대한 투쟁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대 총학은 학생 정치조직과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들이 따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겠다는 것도 물론 아니었다. 대학생은 이제 학교성적이나 아르바이트, 연애나 취업준비에 매진하라고 말하는 듯하다.

지금 사회가 그들이 말하는, 구경꾼처럼 지켜만 보아도 될 만한 상황인지 묻고 싶다. 제도권 교육을 거처며 옆에 있는 친구를 밟고 대학이라는 곳에 왔다. 자유로움을 꿈꾸며 왔지만 그저 도서관에 앉아 토익과 취업준비에 바쁘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고민하는 것은 사치가 되어버렸다.

대학은 취업준비학원이 아니고 대학생은 그저 말 잘 듣는 취업준비생이 아니다. 대학생이라면 최소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회문제를 접해야 한다. 나아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변화의 선두에 앞장 서야 한다.

작게 보면 당장 2-3년 후에 직접 겪어내야 할 현실이 될 것이고, 크게 보면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편리와 이기만 생각하고 사회,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서울대 총학생회의 한총련 탈퇴를 단지 흥미거리로 보아 넘기거나 학생조직의 위기로 판단하기 보다는 이를 통해 대학생의 본분과 사회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내가 어떤 대학생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돌아켜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독자 사진첩



사소한 것의 소중함 ... 가장 흔히 마주칠 수 있기에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주변어. 동시에 비탄속 물고기 무리의 장관을 연출할 때 가장 필요한 반가운 존재.

- 수종탐험연구회

## 독자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만화, 만평, 4대 분량의 글 등을 여론면에 게재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ongguk.edu](mailto:dgupress@dongguk.edu)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 보리소

### '100'의 의미

인간이 되고 싶은 곰과 범은 동물 속에 들어가 썩과 마늘만 먹으면서 버티야 했다. 100일 동안. 그 100일 동안 햇빛도 보지 않고 근신하며 버티라는 것이다. 범은 결국 뛰쳐나갔고 곰은 견뎠다. 그리하여 곰은 생명을 잉태하는 여자가 되었고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태평양에는 주먹만한 구멍이 나 있는 작은 나무토막 하나가 동동 떠다니고 있다. 그 바다 밑바닥에서 앞 못 보는 거북이 느릿느릿 헤엄쳐 다니다가 꼭 100년에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온다. 그때 주먹만 한 구멍에 거북이 머리를 끼워 맞출 확률은?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체 중에 사람으로 태어나기란 그보다도 더 낮은 확률이란단. 뱃속 가득 욕심이 들어찬 사람을 보면 "100년도 살지 못할 인간이 천년의 욕심을 부리는구나"라고 꾸짖는다.

산도(産道)를 지나와 태어난 아기가 적어도 100일은 살아줘야 세상을 버틸 만하다 하여 백일잔치를 치러 주었고, 내 자식이 잘 되려면 100일은 기도해야 하기에 어머니들은 절과 교회를 찾아 다닌다.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백악'을 써도 소용이 없으면 그때는 겸손하게 포기의 미덕을 받아들여야 한다.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꼭 찼다. '100'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10이 온전하게 열 번 모였으니 이걸 '전부'이고 '궁극'이다.

석가모니 열반 후 100년이 지나자 우유와 물처럼 화합해 왔던 공동체(승가)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한다. 분열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대승불교라는 더 크고 완전하고 역동적인 세계를 창출해내었다. 부정하다 여겼던 가치도 대승 속에서는 그 자체로 아름답고 똑똑하였다. 100은 꼭 찼기에 버릴 수도 있는 숫자다. 대승의 동국으로 거듭 날 절호의 기회다.

이 미령  
역경원 역경위원

## 취업과 자기계발을 위한 단기강좌

공강시간을 알뜰히 보내자!

- ◆ 일시 및 기간 : 5월 23일 ~ 6월 2일 (주 1회 2시간, 총 2회)
- ◆ 접 수 : 5월 11일 ~ 26일 여학생실 (계산관 1층, ☎ 2260-3058)
- ◆ 대 상 : 동국인 남녀 누구나 \* 선착순 마감

강좌명	강사	시간	비고
커리어 포트폴리오 작성과 발표	박선희 취업지원센터 커리어 컨설턴트	5/23(화), 24(수) 3시~5시	다양관 세미나실
이미지 메이킹	김은진 프리랜서 강사	5/25(목), 6/1(목) 1시~3시	다양관 세미나실
입사서류 작성법 및 면접특강	박창욱 (주)K.BRDGE 대표	5/26(금) 2시~4시	학림관 307호
업종별 입사전략	윤영철 (주)페이비스그룹 대표	6/2(금) 2시~4시	학림관 307호

◆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념품과 간식을 드립니다.

## 여 학생실

## 지न्ह오 동대신문을 읽고

### 다채로운 기획과 풍부한 내용 돋보여

지न्ह오 동대신문은 다채로움과 역동성이 느껴지는 신문이었다. 특히 건학 백주년 행사와 그 외의 학내·외 소식들을 최대한 빠짐없이 전달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우리 학교 건학 백주년의 향연 속에, 동대신문은 백주년의 화려한 축제와 행사 소식을 잘 전달하면서 한편으로는 학교생활 전반에 이르는 정보들을 다루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한다. 그런 점에서, 지न्ह오에는 백주년 기획 기사로 실린,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의 백주년 기념 추사는 백주년 행사가 우리 학교 집안 잔치만이 아닌 대외적으로도 함께 건학을 축하하는 자리임을 알리는 것과 아울러 우리 동국인에게는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을 선사할 수 있었던 기사라고 생각한다.

우리학교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백주년 기념 특별전과 관련하여 정우택 박물관장님의 글도 인상적이다. 국보전이 진행되고 있는 요즘, 시의적절하게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유물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박물관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지역주민과 손잡은 학내행사 관련 기사는 기자의 지적대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가 백주년 행사와 관련된 일회성의 단발로 그치지 말고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시를 통해 앞으로 우리 학교의 발전 방향 측면에서 볼 때 좋은 지적을 했다. 예코 캠퍼스·자연 캠퍼스를 주제로 한 기사도 눈여겨 볼 만 했다. 최근의 해학문 주변과 학교 캠퍼스에 새롭게 조성된 녹지공간을 찾아볼 수 있어서 반가웠다. 이런 점에서, 학교 측이 앞으로 세심한 신경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앞으로도 이러한 환경·생태 관련 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하고 다각적인 방향으로 연계되는 기획 기사로 다뤄지면서 지속적으로 보도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숙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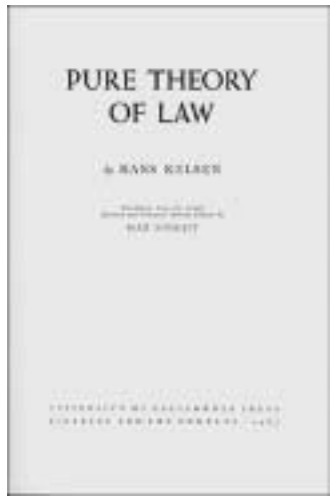
##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원향
월	육개장 (2000) 해물굴소스볶음밥 (2000) 삼산적구이백반 (2000)	손만두국 (2000) 비엔나튀김&머스터드 (2000) 콩나물&비빔냉면&정어기스 (2000)	된장찌개 (3200) 부대찌개 (3500) 코다리무조림 (3500)	북어해장국 (2000) 삼선볶음밥&김장소스 (2900) 버섯담가장 (2900)
화	부대찌개 (2000) 쇠고기케라미스 (2000) 낙지콩나물비빔밥 (2000)	닭곰탕 (2000) 중국식볶음밥 (2000) 오삼불고기 (2000)	된장찌개 (3200) 날치알술밥 (3500) 떡갈비찜 (3800)	어묵매운탕 (2000) 철판재육볶음 정식 (2900) 순대국밥 (2900)
수	해물경단백반 (2000) 라조국 (2000) 치즈볶음밥 (2000)	어묵찌개&궁중떡볶이 (2000) 재육비빔밥 (2000) 해물잡채달걀 (2000)	된장찌개 (3200) 비프커피렛 (5000) 참치회덮밥 (3500)	사골콩나물해장국 (2000) 생이채불고기비빔밥 (2900) 꾸꾸미철판볶음덮밥 (2900)
목	참치캔비빔밥 (2000) 롤&스피게티 (2500) 안동찜닭 (2000)	참치김치찌개 (1800) 떡갈비&이채볶음밥 (2000) 계란말이&백반 (2000)	된장찌개 (3200) 감자탕 (3500) 황태구이 (3800)	탕국 (2300) 원향정식 (2900) 철판김치두부찌기 (2900)
금	설렁탕 (2000) 재육김치&비빔계란국 (2000) 오므라이스 (2000)	갈비탕 (2000) 순대볶음 (2000) 꾸꾸미물고기 (2000)	된장찌개 (3200) 냉모밀&유부초밥 (3500) 삼겹살김치볶음 (3500)	사골곰국 (2300) 닭도리탕 (2900) 철판쇠고기볶음밥 (2900)

대학생이 읽어야 할 고전 ⑥ 한스 켈젠의 '순수법학' (Reine Rechtslehre)

“법의 정의와 그 존재에 대한 진지한 고찰”

빈틈없는 논리로 객관성과 엄밀성에 기초해 순수법이론 주창



한스 켈젠(Hans Kelsen, 1881~1973)은 현대 순수법이론의 토대를 구축한 법이론가로서 20세기의 가장 저명한 법학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유명한 사회주의자이자 '희망의 원리'의 저자인 에른스트 블로흐는 그를 법학자 가운데 가장 예리한 사람이라고 칭찬 바 있다.

그의 순수법이론의 구성은 1911년에 출간된 저서 '국가법이론의 주된 문제들'에서 발견되며, 이러한 구성을 완결된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순수법학'이다.

그의 순수법학은 법학의 역사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큰 흐름 중의 하나이며, 더욱이 법실증주의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법이론 중의 하나이다.

켈젠의 순수법학이 스스로를 법에 관한 '순수한'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오로지 법(실정법)으로 지향된 인식만을 보장해주고 법으로 규정된 대상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배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순수법학은 특별한 법철학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실정법이론이며, 법학이 아닌 법철학이 아니다.

따라서 순수법학은 법이란 어떻게 존재해야 하고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전개되었던 전통법학이 거의 무비판적으로 법학을 심리학, 사회학, 윤리학 및 정치이론과 혼합시켰던 방법론적 혼란을 극복하고 과학으로서의 법학을 순수성으로 지칭되는 객관성과 엄밀성에 정초시키고자 한 것이 순수법이론을 주창한 켈젠의 의도였다.

'순수법학'은 방대한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 논리에 있어 높은 추상성과 일반성을 견지하고 있다. 당위는 당위에서 도출될 뿐 존재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는 신칸트학파의 방법이 원론에서 출발하여, 동적 법철학의 효력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창안해낸 근본규범(이론)에 기대어 실정법체계의 전체적 통일성을 구성하고자 하는 그의 이론적 기획 및 그에 따른 내용적 형성은 '순수법학'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주제의 구성구석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고 정치한 논리적 사고를 통해 펼쳐지고 있다.

사실 켈젠은 이 책에서 모든 범용성에 있어 자신의 이론적 근본입장을 관철시키고 있으며, 특히 그 전개과정에서는 빈틈없는 논리를 구사하여 특유한 자기체계를 다짐으로써 가히 대가다운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에서의 가치중립적 태도로 인해 그의 순수법학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고, 공산주의자나 자본주의자, 파시스트나 민주주의자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정치적 노선으로부터 격심한 공격을 받아 왔다. 지금에 와서도 켈젠의 순수법학에 대해서는 일면 강력한 지지자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격렬한 반대자도 있다. 이점에 대한 태도표명은 그의 법이론에 대한 독자 개인의 성찰의 몫일 것이다. 하지만 법학도라면 누구든 간에 이 책을 통해 그 풍부한 내용과 명쾌한 논리 전개에 탐닉할 수 있을뿐 아니라 법학에 관한 깊이 있는 성찰의 계기를 갖게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변종필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연구소를 찾아서 - ⑥ 산업기술연구원

꾸준한 과제수주 증가로 자체운영을 향한 힘찬 도약

우리학교에서 꾸준한 과제수주를 통해 연구실적을 올려 자체운영을 목표로 달려가는 연구원. 그곳은 바로 산업기술연구원(원장=이종태·산업시스템공학이다).

산업기술연구원은 연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학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는 1975년 산업기술연구소에서 출발하여 1996년 반도체 연구소, 정보통신연구소와 통합된 뒤 지금의 산업기술 연구원에 이른 것이다.

이곳은 이종태 원장을 비롯해 전임연구원 2명, 조교 3명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간사 1명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12명으로 꾸려지고 있다.

또한 연구부는 △기계연구부 △전기·전자 연구부 △화학공학연구부 △식품연구부 △컴퓨터연구부 △산업경영·안전

연구부 △반도체연구부 △정보통신환경 연구부로 나뉘어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진다.

산업기술연구원에서는 주로 정부·기업에서 내는 과제를 관리하며, 교수들의 과제 진행상태를 살펴, 보고서·결과물·연구비 정산 관리 등을 맡아 하고, 연구소 자체에 내려오는 과제와 프로젝트도 수행한다.

또한 정산대, 공과대 소속의 학과별 초청강연이나 세미나에 대한 재정지원, 교수 논문에 대한 업무지원을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논문집과 소식지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2번 발행하고 있다. 1년에 4번 개최하는 워크숍은 지난 3월에 이어 6월에도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산업기술연구원은 인력부족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승정 전임연구원은 "전임연구원은 2명이 학술적인 일과 과제수주 관리를 모두 하다 보니 업무량이 많아 분담에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교수님에 따라 본인의 학문을 고집하거나 과제에 대해 관심 없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산업기술연구원에서는 올해 상반기 저조한 상황인 과제수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나아가 연구소 자체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임연구원의 인건비 및 학술행사지원 등 기존의 학교 지원에서 벗어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확실한 준비단계를 거치면 이는 연구원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

그런가 하면 지난 2년간 발행하지 못했던 소식지가 올해는 발행될 예정으로 현재 편집단계에 있다. 그와 함께 가을에 열릴 산업기술연구원주관 학술대회에도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해 90억 이상의 연구수주를 달성한 산업기술연구원. 이는 지난 몇 년간에 비해 눈에 띄게 성장한 수치이다. 올해도 활발한 연구로 그 위상을 드높이기를 기대해본다.

임isonaral@dongguk.edu

Advertisement for 'The 100th Anniversary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featuring 'Ecology and Buddhism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and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태학'.

Advertisement for '수행과 건강' (Practice and Health) book by Kim Dong-yeol, published by Dongguk University Press.

Advertisement for '2006년도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공고(2차)' (2006 National Reserve Training Recruitment Notice (2nd Round)).

달하나 천강에

성년의 날을 맞은 캠퍼스에서



정수현  
문과대 일어일문학과 교수

오늘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듯한 스물한 살 청년의 얼굴같다고 젊은 시인 피천득의 시처럼, 신록으로 아름다운 계절이다. 심한 황사에 시달렸던 사월을 보내고 맞이하는 오월이니 더욱 밝고 맑고 싱그럽다. 이러한 오월에는 많은 기념일들로도 화려하다. 특히 올해 동국의 캠퍼스는 푸른 목역을 배경으로 백년을 기념하는 연등이 영롱하다. 부처님도 오월에 오시고, 근로자·어린이·어버리·스승·성년의 날, 그리고 5·18기념일까지... 성년의 날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올해는 스승의 날과 겹쳐졌다. 싱그러운 오월의 푸르름 속에 모든 기념일들이 함께 어우러져 대협장을 이루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날이 성년의 날이라고. 천상천하유아독존. 진정한 자립을 위하여 굳게 결심하고 확실한 나이테를 갖는 날이라고. 부모의 도움을 결연히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공부하며 삶을 개척할 설계를 하는 날이라고. 우리 현대사는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를 겪었다. 이때 울로리 같으므로 캠퍼스에 최후탄이 난무하던 시절은 먼 옛날처럼 되었다.

학생들의 관심은 개인취미생활이나 동호인 단위로 축소되고, 결혼에 대한 의식변화나 웰빙 바람 등이 두드러진다. 가족계획을 강조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새 출산율 저조 세계 1위라고 한다. 이렇듯 어렵게 태어난 만큼, 더욱 소중한 앞으로의 세대들이 의존적인 젊음을 살 수는 없다. 젊음 자체로도 독립적이어야 빛난다. 씩은 젊음을 버려야 한다. 기러기부모·헬리콥터부모의 과잉보호와 관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립을 추구하는 기념일이 될 때 모든 성년은 평등해진다. 의존적인 나약한 젊음을 산다는 것은 자아의 모습으로 고통이다. 역설적이지만, 성년의 날이 필요해진 이유를 웅변으로 보여주는 오늘의 모습이다.

대학입시까지도 비정상적으로 의존적인 교육현장인데, 대학생이 된 이후까지 의존적이어서야 미래가 없지 않은가. 중소기업의 힘든 사업현장에서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나 농촌의 늙어가는 외국인 신부 비율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높은 진학률로 대학생·대학원생은 증가하는데... 대학입학과 성년의 날을 맞이함과 동시에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등록금을 해결하고자 노력할 때, 진정한 젊음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경제적·학문적 자립의식이 복지 사회로의 첫걸음이라. 식민과 전쟁을 겪었던 우리 앞 세대로부터 앞으로의 세대로 도도히 흘러 갈 역사 속에서...

“노려라! 잡아라! 대학생의 마음”

기업의 대학생 지원 이벤트 활발 ... 영리적 목적 불구 win-win 전략 평가

“대학생의 마음을 잡아라!” 기업들의 전략적인 마케팅이 한층 더 똑똑해졌다. 그 중에서도 대학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다양한 이벤트는 한 발 더 다가선 호불호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다. 최근의 기업들은 기존의 장학금, 발전기금 혹은 건물설립 등의 대내외적인 지원뿐 아니라 대학생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감성마케팅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우리학교 투자동아리 RICH는 지난해 동양종합금융증권이 실시한 대학교 증권동아리 종합지원제도의인 ‘BUS(Boom Up System for University)’의 2기 모집에 선발되어 3개월마다 총 4번에 걸쳐 50만원씩 200만원을 지원 받고 있다. ‘BUS’ 프로그램은 대학생 실물경제 체험과 경제지식 향상을 위한 것으로 선발된 증권동아리는 증권투자자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RICH는 더불어 동양증권으로부터 동아리활동용 PC 2대를 지원받았고, 학내 축제 때 ‘베스트 애널리스트와의 만남’ 강연회를 앞두고 있다.

세터, 엠티, 축제 기간은 기업들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기에 좋은 시기이다. 해마다 이 시기에는 주류 업체간에 열띤 홍보전이 펼쳐진다. 이번엔 두산 청아에서는 대학 축제

시즌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축제기간동안 주점을 운영하는 학과나 동아리를 대상으로 청하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2006 캠퍼스 청하마을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우리학교에서는 전자공학과 동아리 SSID, AD.RUSH, KCC(한국상경학회)가 선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청하 운영사무국 원동찬 씨는 “젊은 층을 겨냥한 이벤트이고 대학생들에게 자연스러운 인지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SSID의 립톤 음료 지원, AD-RUSH의 KTF 2006 레드 고 페스티벌(Reds Go Festival), 오피스의 KTF ‘Na캠퍼스동아리 페스티벌’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를 교내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런가하면 효성은 지난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대학생들의 노후한 생활공간을 리모델링해주는 ‘Change Your Campus’ 이벤트를 시행 중이다. 혜택을 받은 고려대학교 마술동아리 미스디렉션의 김경원(전파통신공학2) 군은 “학교에서는 리모델링 요청 즉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연습공간이 쾌적해져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효성 홍보팀 손승현 씨는 “대학생은 자신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캠페인을 선호한다”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함에 있어 ‘대학 문화 지원’이라는

컨셉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이벤트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학생들은 곧 사회에 진출할 잠재고객으로서 중요한 소비자 층인 동시에 미래에 기업의 주체가 될 대상이기도 하다. 이에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채용 대상자들에게 기업 이미지 홍보를 통해 우수인재 확보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영균(광고홍보학) 교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 대비 얻는 게 많다는 기업의 계산”이라며 “영리적인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필요한 사람이 수혜 받을 수 있는 win-win 전략”이라고 평했다.

대학생들의 가벼운 주머니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기업들의 대학생 지원 행사는 분명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공공대며 힘들어하거나 주변에서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다양한 이벤트를 노려보는 것은 어떨까.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취업지원센터 활용Tip

채용패턴이 바뀐다, 또 하나의 취업경쟁력!

인턴십·산학협동 프로그램 활용

모든 전쟁에서 그러하지만 취업전쟁에서도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인턴십의 성격에 따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가 조금씩은 다르므로 항상 예의주시해야 한다.

요즘은 많은 기업들이 회사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인턴십 프로그램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4학년이 되면 대부분 취업 준비에 바빠진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인턴보다는 코앞에 닥친 토익점수나 학점 올리기에 매달리지만, 이것저것 할 것 없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대부분 기업이 인턴 자격을 재학생으로 한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졸업 후에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음을 잊지 말

것. 학점이나 토익점수가 높지 않다고 해서 미리 겁먹는 것도 금물이다. 인턴십을 실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실무에 투입해 일할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실무를 충분히 소화할 만한 적극적인 자세와 조직 융화력 등 인성에 높은 기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적극적인 자세로 여러 기업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진로를 명확히 하라! 인턴십 경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에서의 인턴 경력이라면 자신의 기본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은 되지만 전부는 될 수 없다. 지원하는 분야와 전혀 다른 분야의 인턴경험은 취업시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사 담당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때문에 먼저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설정 한 뒤, 원하는 기업이나 동종 업계에서 꾸준히 인턴 경험을 쌓아야 한다.

우리학교 취업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학협동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산학협동프로그램의 목적은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여 대학생에게 기업 장기근무(5개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대학과 기업에게는 산업계 수요에 맞는 우수인재 육성 및 발굴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박 선 희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

선발일정

- 가. 신청자격 :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휴학생 제외)으로서 성적 3.0이상인 자
\* 매 학기 선발 시 별도의 기업별 신청 기준을 제시함.
나. 신청기간 : 상세한 모집일정은 매학기 말(매년 12월과 6월 전후)에 공고함.
다. 제출서류 : 신청서(사진, 이력서/자기소개서/성적증명서 첨부) 1부
\* 이력서/자기소개서는 자유양식이며, 신청서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라.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 : 기업별 실시 후 개별통보
마. 연수기간 : 5개월

혜택

- 가. 학점인정 : 자선 또는 전공 15학점(5개월 기준)
\* 성적은 Pass제로 처리하며, 졸업학점에는 포함되고, 해당 학과 자문을 통해 전공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음.
나. 연수수당(매월) : 정부지원금(30만원) + 학교지원금(30만원) + 기업지원금
\* 상세한 내용은 당해 기업과 계약체결 시 협의 후 결정함.

40th Anniversary of The Dongguk Post
모시는 글
동국대학교 역사신문사 The Dongguk Post가 올해로 창간 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The Dongguk Post에 무한한 애정을 가져주시는 여러 동문과 교수님들, 학교 관계자 분들이 함께 자리할 예정입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신문사 사장 홍기상
The Dongguk Post 부주인 김예주

건학 백주년 기념 생태환경논문 공모전
1. 공모 대상 : 동국대학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2. 논문접수 및 마감일 : 9월 11일(월) ~ 9월 15일(금)
3. 당선작 발표 : 9월 29일(금) (홈페이지 게시 및 당선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4. 당선작 공개발표회 : 10월 13일(금) 오후 2:00 ~ 5:30
5. 논문제출 및 접수방법
- 논문 1부(요약 및 연락처 포함)와 디스켓(또는 이메일)제출
- 방문접수(접수시간: 오전 10:00 ~ 12:00, 오후 2:00 ~ 5:00)
-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에 한함)
6. 논문 내용 : 불교생태사상, 환경기술 및 공학, 자연환경, 환경정책 등 생태·환경 관련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논문형식으로 정리하여 투고
7. 시상내역
- 대상(총정수) 1팀: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대학원생: 최우수상 1팀(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 1팀(상장 및 상금 50만원)
- 대학생: 최우수상 1팀(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 1팀(상장 및 상금 50만원)
8. 문의 : 전화 : 02)2260-8648, FAX : 02)2260-8649
홈페이지 : www.eco-forum.or.kr
이메일 : ecoforum@dongguk.edu
주소 :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9번지 동국대학교 계산관 104호 생태환경연구센터

제1회 공과대학/정보산업대학 학생 프로젝트 작품 공모전
응모자격
동국대학교 공과대학/정보산업대학 재학생 (개인 또는 팀)
신청서접수
2006년 5월 29일(월)~6월 16일(금) 17:00까지
작품접수
2006년 10월 9일(월)~10월 13일(금) 17:00까지
접수 및 문의처
각 대학 행정지원실 (상세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주최
동국대학교 공과대학/정보산업대학
연락처 : 공과대학 행정지원실 이상원 과장 (tel : 02-2260-3330)